

윤 대통령 “한·일 더 좋은 시절”...기시다 “벌써 역동적”

확대회담 모두발언서
‘셔틀외교’ 긍정 평가
지속발전 필요성 공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12년 만에 재개된 ‘셔틀외교’를 축하하고 한일 관계의 지속적 발전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윤 대통령은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기시다 총리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먼저 지난 5일 이시카와현 강진으로 발생한 인명과 재산 피해에 대해 우리 국민을 대표해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어 “셔틀 외교의 복원에 12년이 걸렸지만, 우리 두 사람의 상호 왕래에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며 “새롭게 출발한 한일관계가 속도를 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좋은 변화의 흐름은 처음에 만

들기가 힘들지만 일단 만들어지면 대세가 되는 경우가 많다. 지금의 한일관계 흐름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에 본격적인 개선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며 “과거 양국 관계가 좋았던 시절을 넘어 더 좋은 시절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의 엄중한 국제 정세와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에서 한일 간의 협력과 공존은 양국의 공동이익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한일) 양국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밝혔다.

이에 기시다 총리도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3월 회담에선 한일관계를 중층적으로 강화하고 재구축할 것, 그리고 우리가 구령을 넣어 (한일 간) 위축된 분위기를 불식하고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일치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로부터 두 달이 되지 않은 사이에 벌

써 다양한 대화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시다 총리는 “확대회담에선 그런 양국 관계의 진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싶다”며 “또한 주요 7개국(G7) 히로시마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한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최근 정세와 글로벌 과제에 대한 협력도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일본 이시카와현 지진 피해에 대해 위로의 말을 전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시다 유코 여사가 7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 현충탑을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총리로는 12년 만에 현충원 참배

“안보협력 강화 의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한국 방문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했다.

일본 현직 총리가 현충원을 방문한 것은 2011년 10월 당시 한국을 방문한 노다 요시히코 총리 이후 약 12년 만이다.

기시다 총리는 부인인 기시다 유코 여사, 기하라 세이지 관방부장관,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 등과 함께 엄중한 분위기 속에 한국의 순국선열을 향해 참배했다.

일본 정부 당국자는 기시다 총리가 국립현충원을 방문하는 의미에 대해 “한 국가의 정상이

방문국의 현충 시설을 찾아가 그 나라의 역사와 관련한 많은 사람의 삶에 존경의 마음을 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기시다 총리도 한국 역사에서 그런 (현충원에 묻힌) 사람들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국립현충원은 독립운동가와 6·25전쟁 전사자 등 순국선열을 추모하는 곳이다.

일본 총리로서 처음으로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한 인물은 1983년 나카소네 야스히로(1918~2019)다. 나카소네는 일본 총리로서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후 2006년 아베 신조(1954~2022), 2009년 아소 다로 당시 총리도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헌화, 참배했고, 2010년 방한한 당시 하토

야마 유키오 총리는 대전현충원을 찾아가 참배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의 현충원 참배와 관련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 정상이 이 묘지를 참배하는 것은 관례”라며 “기시다 총리로서 ‘셔틀외교’를 재개한다는 자세를 한국 측에 보여주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난 4일 보도한 바 있다.

국립현충원에 묻힌 순국선열의 대다수는 6·25전쟁 전사자라는 점에서 한일 안보 협력 등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기시다 총리의 현충원 방문에 대해 “한일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안보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기시다, 오늘 한일의원연맹 면담

민주당 윤호중 의원 참석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7일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의원연맹 측과 면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참석하기로 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8일로 예정된 기시다 총리와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 면담에 연맹 회장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과 간사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초 두 의원 외에도 연맹 부회장인 김석기 의원(국민의힘), 상임 간사인 성일종(국민의힘)·김한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초청 대상이었으나 일본 측과 협의·조정 과정에서 정 의원과 윤 의원이 두 명만 참석하는 것으로 조율됐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대일 외교를 ‘굴욕외교’라고 비판해온 가운데 민주당 소속 윤 의원은 고심 끝에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면담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윤 의원은 이날 “여러 우려곡절도 있었지만 국민 대표로서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참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내부에선 기시다 총리와 면담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렸다.

민주당에선 지난 3월 한일정상회담을 ‘굴욕적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국정조사까지 요구했던 만큼 이날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도 우리가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다면 ‘항의’ 차원에서 면담을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반면 기시다 총리를 만나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직접 요구하고, 이 사실을 국민에게 설명함으로써 책임 있는 대안 야당의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윤 의원이 면담에 참석하기로 한 것도 후자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사죄·배상 먼저” vs “한일관계 회복”

서울 곳곳 찬반 집회

7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시민사회 반응이 엇갈렸다. 진보 성향 단체들은 “굴욕외교”라며 일본 정부에 과거사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다. 보수단체들은 일본 총리의 방한을 환영하며 ‘한일관계 회복’에 의미를 부여했다.

정의기억연대·민족문제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일 정상회담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범기업의 강제동원을 일본 정부가 사죄·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에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에 경고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요구하라고 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낮 12시 기자회견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시민사회 반응이 엇갈렸다. 진보 성향 단체들은 “굴욕외교”라며 일본 정부에 과거사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다. 보수단체들은 일본 총리의 방한을 환영하며 ‘한일관계 회복’에 의미를 부여했다.

권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역사 왜곡과 책임 부정으로 일관하는 기시다 정권에 거듭 면죄부를 주는 굴욕 외교의 자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한일 셔틀외교 복원은 과거사 문제를 졸속으로 처리해 한일동맹을 구축하고 한국을 중국과 대결에 동원하려는 미국의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신자유연대는 회담 반대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린 대통령실 인근에서 ‘한미일 군사 동맹 강화’, ‘기시다 총리 답방 환영’ 등 구호를 내걸고 맞불 집회를 열었으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오후 3시 광화문 시민연립마당에서 ‘기시다 총리 환영 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 40여명은 한국프레스센터까지 1km가량 행진하며 ‘한일관계 회복’ 등을 외쳤다. 한 시민이 구호에 반발해 행진 대열에 달려들다가 경찰에 의해 제지됐다. /연합뉴스

우리지역 광주·전남 제품
지역인재 고용창출에 앞장서는 기업

air purifier **DK**

스탠드형
사무실, 가정용
어린이집, 유치원 특화제품

벽걸이형
경로당, 병원, 노인복지시설
사무실, 초·중고 학교용 특화제품

DK 디케이 주식회사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